

보도자료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료 문 의 : 산업정책연구원 경쟁력본부 홍수현 연구원
(02-360-0765, shhong@ips.or.kr)

보도자료 배포 : 산업정책연구원 경쟁력본부 김지영 팀장
(02-360-0781, jykim5@ips.or.kr)

지식경제부, 산업정책연구원 '12년도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발표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강화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적 개선(AAA등급 ↑)

- ✓ 지속가능경영, CEO 아젠다로 부상
- ✓ 금융, 유통, 서비스 등 비제조업 분야의 환경경영 성과 개선
- ✓ 지역사회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영역으로 나타나
- ✓ 정부의 동반성장 기조에 따른 상생협력 분야 성과 개선되었으나, 2·3차 협력업체까지로의 지원범위 확대 미흡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와 산업정책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도입수준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2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코벡스 SM: KoBEX SMTM)¹⁾」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2년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87.97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평균 3.44점(84.53→87.97) 상승하며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대응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는 지속가능경영 비전(95.55점), 고객(90.25점), 작업장(90.01점), 환경경영(88.16점), 협력업체(86.88점), 지배구조(83.84점), 지역사회(78.9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인 영역으로는 협력업체(8.35점), 지역사회(6.89점)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14개 신규 기업이 최고등급인 AAA등급에 편입되는 등 총 34개 기관(민간, 공공기관 포함)이 트리플에이(AAA) 기업으로 선정되었다.(아래 표 참고).

1) KoBEX SMTM(Korean Business Ethics Index-Sustainability Management)개요: KoBEX SMTM은 2003년 지식경제부와 산업정책연구원 개발한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평가지표(KoBEX)를 지속가능경영 평가로 확대 및 개정한 지표

조사 연혁 : KoBEX 실태조사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이루어져 왔으며, 2008년부터 KoBEX SMTM으로 개정하여 2012년 4년 차 진행

[표 1] 2012 조사결과 우수기업(90점 이상 AAA 등급 기업)

		우수 기업군(AAA등급, 가나다순)
공기업 (22)	AAA등급 *유지(15)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AAA등급 *신규(7)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기업 (12)	AAA등급 *유지(5)	유한킴벌리, 포스코특수강, DGB금융지주, KB국민은행, SK하이닉스
	AAA등급 *신규(7)	삼성화재, 웅진씽크빅,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엠텍, 현대모비스, KB금융지주(최초참여), LG생활건강

〈*이전 조사결과 기준〉

지난 3년간의 실태조사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속가능경영이 CEO가 직접 관리하는 아젠다로 부상했다는 점으로, 조사기업 전체가 경영진 차원(CEO)에서 공식적인 사내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97%이상의 기업에 경영진 성과평가항목으로 편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경영에서는 금융, 유통, 서비스 산업 등 비제조업에서의 환경정책 및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업들의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환경경영 영역 점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85.24→88.16). 이는 전년도 비제조업에서 환경관련 책임을 축소하려는 경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역사회 영역은 전년도에 이어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지적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향후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단순 기부가 아닌 투자 차원으로 인식하여 지역사회 개발을 비즈니스와 연계하고, 전략적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제도를 다양화 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계획의 수립부터 영향력 평가까지 관심을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협력업체 영역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품질/안전/환경, 생산성 향상, 교육, 정보공유 등)가 다양화 되며 협력업체 영역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2차·3차 협력업체까지로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KoBEX SM™은 2003년 최초 도입되어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사내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되고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경영대상²⁾의 평가항목으

2) 지속가능경영대상: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표준협회, 산업정책연구원 및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주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동기

로도 활용되고 있다. '12년도 조사에서는 42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38개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설문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기업별 응답 확인 과정(Cross checking)을 통해 최종 결과를 집계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업들은 피드백 보고서를 통해 무료로 평가 결과를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강약점을 파악하여 차기년도 지속가능경영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산업정책연구원 김재은 원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 규범강화에 따라 국내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속가능경영을 어떻게 기업의 DNA로 심고, 이러한 변화를 일반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³⁾(CSV) 접근법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첨부

[붙임1]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 1부

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내 유일의 정부 포상 제도

3)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마이클포터 하버드대 교수와 마크 크레이머 FSG 대표가 발표한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발전도 함께 추구함으로써 경제·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확대 하는 경영 전략이자 기업 성장 방법론

[붙임1]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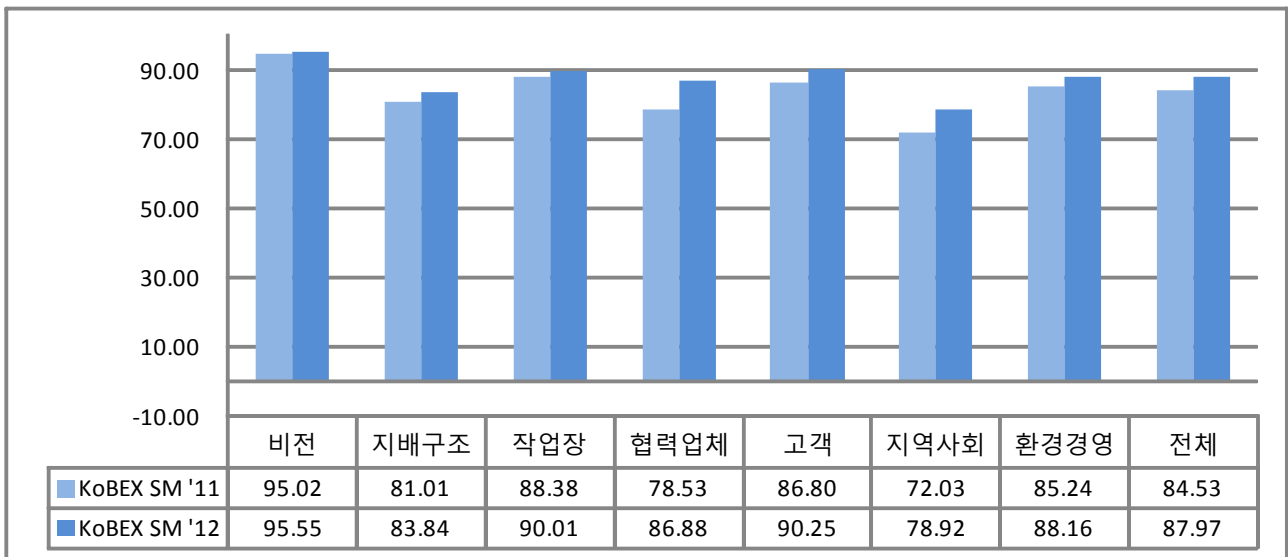
2012. 12

I. 2012년도 KoBEX SM™ 조사 결과

1

- 2012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 **전체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87.97점으로**, 영역별로는 **지속가능경영 비전, 고객, 작업장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표 1]

[표 1] 영역별 평가 결과 동향(2011-2012)



- 전년대비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영역에서의 개선이 두드러졌으나, 지역사회 영역의 경우 영역 간 비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협력업체 영역은 인프라구축, 품질/안전/환경, 생산성 향상, 교육, 정보공유 등과 같이 상생협력 내용이 다양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협력업체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범위를 2차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환경경영 영역에서는 환경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온실가스 관련 집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참여 기업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올해 참여한 금융기업들이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됨

[표 2] 2012 조사결과 우수기업(90점 이상 AAA 등급 기업)

		우수 기업군(AAA등급, 가나다순)
공기업 (22)	AAA등급 *유지(15)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AAA등급 *신규(7)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기업 (12)	AAA등급 *유지(5)	유한킴벌리, 포스코특수강, DGB금융지주, KB국민은행, SK하이닉스
	AAA등급 *신규(7)	삼성화재, 웅진씽크빅,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엠텍, 현대모비스, KB금융지주(최초참여), LG생활건강

*이전 조사결과 기준

[표 3] 영역별 주요 결과 - 공통지표

영역	주요 결과
지속가능경영비전	지속가능경영비전 영역의 경우 다른 6개의 영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지배구조	전사적 차원에서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 걸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작업장	전년도와 같이 노사관계와 기업내부의 윤리경영제도 운영여부는 작업장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협력업체	거래와 상생협력 등 세부 영역 모두 꾸준히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는 협력업체의 지원범위를 2차, 3차 등으로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고객	전년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던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지역사회	지난 3년 동안 꾸준한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요구됨
환경경영	금융기업들의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과 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 영역별 주요 결과 - 금융지표

영역	주요 결과
지속가능경영비전	지속가능경영비전 영역의 경우 참여 금융기업 전체가 ESG 관련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지배구조	환경정책 및 사회정책에 대한 감사 비중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경영감사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임
고객	투자 대상자와의 계약 및 거래 시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기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프로세스를 갖춘 기업은 다소 낮은 수준임
지역사회	참여 금융기업 대부분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영세 기업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 KoBEX SM™ 등급

[등급 기준]

○ 등급은 평가 총점을 기준으로 하며, 절대값으로 부여함

등급	총점 기준
AAA	90.0점 이상~100점
AA	80.0점 이상~90.0점 미만
A	70.0점 이상~80.0점 미만
BB	60.0점 이상~70.0점 미만
B	60.0점 미만

□ KoBEX SM™ 마크

[참여기업 마크]

○ 참여기업 모두에게 참여기업 마크를 제공하고,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KoBEX SM™ 우수기업 마크]



[KoBEX SM™ 참여기업 마크]

-끝-